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19, Vol. 31, No. 3, 749-777

출소자가 인식한 사회적 지지와 자활의지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수감횟수 및 최초범죄연령별 다집단분석*

강 수 운 이 동 훈†

성균관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출소자가 인식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활의지 간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부터 숙식지원을 받고 있는 출소자 504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 후, SPSS 23.0, AMOS 23.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자활의지의 구조모형에서 모든 경로계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출소자가 인식한 사회적 지지와 자활의지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가 각각 유의하였다. 셋째, 출소자가 인식한 사회적 지지와 자활의지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다중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넷째, 수감횟수 및 최초범죄연령에 따른 측정변인들의 잠재평균 차이를 분석하고, 변인 간 경로계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상정된 연구모형은 수감횟수를 기준으로 구분된 모든 집단과 최초범죄연령을 기준으로 분류된 모든 집단에 대해 좋은 적합도를 보였고, 구조모형이 집단 모두를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의의를 논의하였다.

주요어 : 출소자,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활의지

---

* 본 연구는 강수운(2016)의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출소자가 인식한 사회적 지지와 자활의지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임.

† 교신저자 : 이동훈,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외상심리건강연구소 소장,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호암관 51103호 / Tel : 02-760-0558, E-mail : dhlawrence05@gmail.com

www.kci.go.kr

범죄문제, 특히 재범의 문제는 오늘날 세계 각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공통의 문제이다. 재범과 관련된 영국의 통계를 보면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 중 43%가 1년 이내, 55%가 2년 이내, 68%가 3년 이내에 다시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Cosgrove & O'Neill, 2011), 미국의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출소자의 3분의 2가 3년 이내에 새로운 범죄로 체포되고, 2분의 1이 넘는 숫자가 다시 수감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West, Sabol, & Greenman, 2010).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53,202명에서 55,436명의 성인 수형자가 석방되어 사회로 돌아오고 있다(e-나라지표, 2016). 그러나 대다수의 출소자들은 사회적응 및 재사회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출소 후 사회복귀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취업실패와 그로 인한 경제적 빈곤이다(김대권, 정우일, 2010; 김선희, 최병욱, 2012). 출소 후 재취업을 통한 정상적인 경제생활의 영위가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출소자에게 있어 취업은 가장 필요한 보호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전과기록으로 인한 신분상의 제약, 경력단절, 불량한 신용상태 등의 저해 요인들은 이들에 대한 고용기피 누적의 문제를 초래하였다(조희원, 도광조, 2014). 이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는 기술이 없거나 직업능력이 부족한 출소자에게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위탁직업훈련을 제공하고, 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기업체와 연계하여 취업알선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직업훈련 교육 후 자격증을 취득하였거나 특정 직종에 필요한 숙련기술을 습득한 출소자에게 소자본 창업에 필요한 창업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17). 이와 같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출소자 서비스는 대체로 출소자의 자립과 재사회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출소예정자에게 시행되고 있는 직업훈련이 출소 후 취업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매우 한정적이고, 금전적 지원의 한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양난미, 이건화, 송미경, 이은경, 2016). 출소자의 자활과 관련하여 송순동(2008)은 경제적 자립을 통한 출소자들의 성공적인 재사회화를 도모하는데 있어 제도적 장치나 지원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며, 중요한 것은 출소자 본인의 의지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양난미 외(2016) 또한 출소자의 취업 및 취업상태 유지의 모든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보호요인은 출소자의 의지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출소자가 외부의 지원이나 도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과정, 즉 자활의 과정에서 출소자 본인이 갖는 의지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자활의지(Willingness for Self-Sufficiency)란 외부의 의존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살고자 하는 심리적 능력으로(박경숙, 박능후, 2001), 빈곤층이 빈곤으로부터 탈피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요한 변수이다(장용언, 임중철, 2015). 자활은 크게 경제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정서적 자활은 외부의 사회・경제적 지원에서 벗어나 본인의 생계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써, 자활의지는 바로 이러한 정서적 자활을 측정하는 지표라 할 수 있다(이래혁, 김승아, 노혜진 2007).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력, 연령(Amy, 2000), 소득, 부채(Hawkins, 2002), 육체적・심리적 건강(김세원,

www.kci.go.kr

2005),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자아존중감(김승의, 2006), 사회적 지지(박영란, 강철희, 1999; 이병하, 2003) 등 다양하다. 이 가운데 사회적 지지는 출소자의 자활의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많은 연구에서 언급되고 있다(양난미 외, 2016; 양혜경, 서보람, 2014; 한순옥, 2014).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란 타인으로부터 제공되는 물질적・심리적 도움으로, 개인이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는 모든 형태의 상호작용(Cobb, 1976) 또는 한 개인이 다양한 사회적 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 자원을 의미한다(Cohen & Hoberman, 1983). 출소자들에게 경제적・심리적 지지자의 존재는 위기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재범을 억제시켜 주는 동시에 재사회화 정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는데(임봉기, 2010), 사회적 지지망은 출소자들의 가치관과 행동에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시키는 변인으로 작용하였다(홍봉선, 2002). 실제로 출소 후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집단에 자연스럽게 소속되고 가족 및 친구와의 만남이 원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지역사회 적응수준이 향상되었으며(장완영, 2009), 진로단절을 극복하고 자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선숙, 2010).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사회적 지지가 출소자의 자활의지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자활의지에 이르는가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밝힌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출소자의 자활의지 향상을 통해 재범 예방 방안을 도모하기 위한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할 때, 사회적 지지와 자활의지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을 찾아내어 사회적 지지의 미흡 또는 부재 시,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자활의지를 증진시키는데 요구되는 보호 요인들의 효과성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출소자의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사회적 지지가 자활의지에 이르는 경로에 자아탄력성과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매개변인으로 상정하였다.

자아탄력성(self-resilience)이란 적절한 자아통제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나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 융통성 있게 반응함으로써 성공적인 적응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Block & Kremen, 1996). 출소자들에게는 수감 중에 형성된 부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수감생활로 인해 수동적인 교도소형 인간이 되며, 사회에 나왔을 때 문화 지체로 인한 괴리감을 느끼고 다양한 심리・정서적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이동훈, 신지영, 오혜영, 박성현, 2015). 그러나 위기 상황에 있는 모든 출소자들이 부적응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같은 수준의 스트레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좌절하고 부적응적인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위종희, 조규판, 2014), 자아탄력성은 이러한 개인의 행동을 결정짓는 심리적 특성으로 작용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자아탄력성이 적극적인 문제 해결능력과 건강한 사회적응의 토대로서 출소자의 자활의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예측할 수 있게 해 준다.

출소자의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에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active stress-coping method)이 있다. 염정선(2014)은 출소자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

www.kci.go.kr

도록 도와주는 제도적 지원 및 사회적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출소자들이 급변하는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습득하고, 그 대처방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황에 잘 대응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란 문제를 일으키는 사회적 경험에 대하여 개인이 심리적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는 행동양식(Pearlin & Schooler, 1978)으로, 스트레스를 다루는 행동적・정서적・인지적 시도라 할 수 있다(Lazarus, 1998). 이상의 연구결과는 출소자가 경험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심리적 문제들을 야기하고, 이것은 결국 출소자의 자활의지나 근로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나타냄으로써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출소자의 자활의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앞서 언급한 사회적 지지는 자아탄력성과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예측요인으로도 중요하게 논의되어 왔다(Cook & Bickman, 1990; McAuley, Bane, & Mihalki, 1995). 우선 자아탄력성은 사회적 지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의 관계에 대하여 논의한 선행연구들(김현중, 2012; 민그래, 이희선, 2013; 정지영, 임정하, 2011; Cohen & Wills, 1985)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이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며, 사회적 지지가 위기에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인 자아탄력성을 발달・증진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가족, 친구 등 사회구성원들로부터 주어지는 지각된 지지는 개인이 자신의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며,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자아탄력성을 증진시켜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위종희, 조규판, 2014).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또한 사회적 지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회적 지지와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갖는다고 밝힌 선행연구(박선정, 정규석, 2016; Cohen & Wills, 1985)에서는 개인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적극적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한다고 보고하였다. 타인과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얻게 되는 사회적 대처자원으로서의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하게 하며, 스트레스로 인한 문제를 완충시키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또한 매개변수로 상정한 자아탄력성과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선행연구(Cohen & Wills, 1985; Cook & Bickman, 1990; Gottlieb, 1983; McAuley et al, 1995)에서는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에너지가 풍부하여 여러 분야에서 효율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혀졌다. 자아탄력성은 개인이 자신의 스트레스 대처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고, 문제 중심의 적극적 대처방식을 사용한다는 연구결과(김광웅, 2007)는 자아탄력성이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주요한 보호요인임을 나타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출소자의 자활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근거로 사회적 지지가 출소자의 자활의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자아탄력성과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매개로 자활의지에 간접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가정 하에 부분매개 모

www.kci.go.kr

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여 통합적인 모형 안에서 관련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탐색해 보고자 한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한편 재범 여부는 출소자의 자활의지를 평가할 수 있는 핵심 요인으로, 수감횟수와 최초범죄연령은 출소자의 재범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설명력이 높은 요인으로 논의되어 왔다(신연희, 2007; Baumer, 1997). 수감횟수란 '하룻밤 이상의 기간 동안 소년원 또는 교도소에 갇힌 횟수'(White, Chafetz, Collins-Bride, & Nickens, 2006; Khan et al, 2009)로, 수감횟수와 재범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Baumer, 1997; Blaginin, 2008; Dejong, 1997; Liu, 1999; Smith & Gartin, 1989)에서는 수감횟수가 많을수록 재범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하며, 수감횟수가 재범과 유의한 연관이 있는 독립변인이라는 분석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또한 최초범죄연령이란 '범죄를 저질러 처음으로 경찰 혹은 검찰에 체포되어 구금시설에 갇힌 연령'(신연희, 2007; Liu, 1999)으로, 최초범죄연령과 재범의 관계에 대해 논의한 선행연구(노일석, 2010; 박지선, 2015; 황진규, 2011; Loeber & Loeber, 2002; Mitchell, Parent, & Barnett, 2002; Patterson & Yoerger, 2002; Wierson & Forehand, 1995)에서는 최초범죄연령이 낮을수록 재범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감횟수와 최초범죄연령에 따라 자활의지 및 자활의지의 관련변인으로 설정한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잠재평균 및 이들 변인 간 경로계수에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다집단 분석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집단 구분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우선 수감횟수의 경우, 초범집단, 즉 수감횟수가 1회인 집단과 재범집단, 즉 수감횟수가 2회 이상인 집단 간 재범률이 큰 차이를 보이고, 이 가운데 수감횟수가 5회 이상인 집단은 다른 재범집단에 비해 재범률이 현저하게 높으며, 수감횟수가 2-4회인 집단 간 재범률의 차이가 미미하게 나타난 선행연구(법무부, 2015; Fine, Cavanagh, Donley, Frick, Steinberg, & Cauffman, 2017; Hirschel, Hutchison, & Dean, 1992)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수감횟수가 1회인 집단, 2-4회인 집단, 5회 이상인 집단으로 구분하여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최초범죄연령의 경우, 범죄연령과 관련된 선행연구(Martins et al, 2014; Pechorro, Nunes, Jiménez, & Hidalgo, 2015; Phillips, 2017)에서 연령 구분이 10대는 청소년기(adolescence), 20대는 청년기(young adulthood), 30대 이상은 성인기(adulthood)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10대를 청소년기(adolescence), 20-29세를 청년기(young adulthood), 30대 이상을 성인기(adulthood)로 구분하여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출소자가 인식한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활의지 간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2. 수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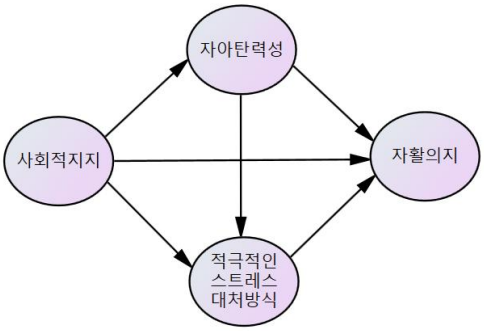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www.kci.go.kr

횟수와 최초범죄연령에 따라 출소자가 인식한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활의지의 잠재평균 및 변인 간 경로계수에 차이가 있는가?

방 법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부터 숙식지원을 받고 있는 출소자 510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산하 <가족희망센터>의 연구용역과제 「출소자 가정 복원을 위한 가족 실태 조사 및 중장기 지원 방안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2014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약 12개월에 걸쳐 이루어진 설문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 인천, 경기, 경기북부, 강원, 대전충남, 대구경북, 부산, 경남 지역 등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총 9개 지부에 연구목적, 설문내용, 실시방법 및 유의사항이 적시된 공문을 발송하여 각 지부 숙식지원 담당자의 협조 하에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숙식지원 대상 출소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과정, 자료의 활용과 범위, 비밀유지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은 후 개인별 설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작성된 설문지는 봉인하여 우편으로 송부하도록 요청하였으며, 각 지부에서 발송된 설문지를 회수하여 확인한 후, 불성실하게 응답한 6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504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 가운데 남성은 496명, 여성은 8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측정도구

사회적 지지

출소자가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Zimet, Dahlem, Zimet과 Farley(1988)가 개발한 사회적 지지 다차원척도(Multidimensional Scale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를 본 연구 목적과 대상을 고려하여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 척도는 가족 지지, 친구 지지, 주요타인 지지 각 4문항씩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 지지 문항에는 '나의 가족들은 나에게 도움을 주고자 진정으로 노력한다', 친구 지지 문항에는 '나에게는 나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친구가 있다', 주요타인 지지 문항에는 '가족, 친구 외에도 내 주위에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MSPSS의 합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수용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집된 자료의 내적신뢰도(α계수)는 가족 지지 .927, 친구 지지 .885, 주요타인 지지 .945로 측정되었다.

자아탄력성

출소자의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Klohnen(1996)이 개발, 박현진(1996)이 번안, 김인경(2012)이 수정한 척도를 성인에게 적합한 내용과 표현으로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Klohnen(1996)은 능숙한 자기 표현력을 측정하는 자신감 9문항, 대인관계에서의 통찰력과 따스함을 측정하는 대인관계 효율성 8문항, 낙관적 태도 10문항, 생산적이고 자율적인 활동력을 측정하는 분노조절 2문항으로 구성된

www.kci.go.kr

총 29개의 자기보고식 자아탄력성 척도를 개발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고, 부정적 진술문은 역점수로 환원하여 계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수집된 자료의 내적신뢰도(α계수)는 자신감이 .829, 대인관계 효율성이 .869, 낙관적 태도가 .750, 분노조절이 .721로 나타났다.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출소자의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측정하기 위해 Lazarus와 Folkman(1984)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오수성과 신현균(2008)이 번안, 김현정, 함경애, 이동훈(2014)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문제 해결 대처방식과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방식으로 구분되는데, 문제 해결 대처방식은 문제를 유발하는 개인적・환경적 원인을 찾아내어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방식은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자문을 구함으로써 당면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을 말한다. 척도는 '전혀 아니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반응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집된 자료의 내적신뢰도(α계수)는 문제 해결 대처방식이 .854,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방식이 .866으로 측정되었다.

자활의지

본 연구에서 출소자의 자활의지는 Mossholder (1980)가 개인 내부의 의욕과 동기를 행동 및 태도의 측면에서 파악하기 위해 고안한 척도에 대하여 김영미(2002)가 재구성하고, 김승의(2006)가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문항 내용은 '스스로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하는 목표가 명확해졌다', '내가 하는 일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집중하고자 노력한다', '일해서 받는 보수가 내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등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자활의지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집된 자료의 내적신뢰도(α계수)는 .939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6단계의 세부 연구 절차를 수립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에 대한 분석은 SPSS 23.0, AMOS 23.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는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고, 신뢰도 검증 결과를 토대로 잠재변인과 측정변인 간의 관계를 명시한 측정모형을 구성하였다. 2단계에서는 측정변인들의 다변량 정규분포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고,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Pearson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한 후, 유의수준 .05에서 측정변인 간 상관을 확인하였다. 자료의 정규분포성 및 측정변인 간 상관 확인 후, 자료에 결측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AMOS에서 제공하는 완전정보최대우도법(FIML)을 적용하였다. 3단계에서는 측정모형의 적합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표본의 크

www.kci.go.kr

기에 민감하여 영가설을 쉽게 기각할 수 있는 χ^2값 이외에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CFI와 TLI,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였다. 또한 수렴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평균분산추출값(AVE) 및 구성개념 신뢰도(CR)를 산출하였으며, 판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잠재변인 간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4단계에서는 적합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측정모형을 토대로 사회적 지지가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탄력성과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구조모형을 구성하였다. 5단계에서는 χ^2 값, CFI, TLI, RMSEA 지수를 고려하여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와 자활의지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자아탄력성과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순차적으로 작용하는 매개효과를 개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phantom변인들을 설정한 후, Bootstrapping 절차에 따라 신뢰구간을 95%로 설정하고, 원자료(N=504)에서 무선표집으로 생성된 1,000개의 자료표본을 토대로 모수 추정을 실시하였으며,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BC 95% CI)에서 0을 포함하지 않을 때,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6단계에서는 수감횟수 및 최초범죄연령이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활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고자 분류된 집단에 대하여 잠재변인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고, 잠재변인 간 경로계수의 차이를 확인하는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출소자의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활의지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에 앞서 측정변인들의 정규성을 검토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분석 결과, 측정변인 왜도의 절댓값이 3보다 작고 첨도의 절댓값이 8보다 작게 나타나 다변량 정규성 가정이 만족되었으며(Kline, 2015), 모든 측정변인들 간 상관이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1. 측정변인의 상관행렬,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분석결과

잠재변인	측정변인	1	2	3	4	5	6	7	8	9	10
사회적 지지	1	1									
	2	.881**	1								
	3	.830**	.896**	1							
자아 탄력성	4	.171**	.136**	.140**	1						
	5	.095*	.103*	.112*	.822**	1					
	6	.230**	.175**	.177**	.839**	.712**	1				
	7	.237**	.165**	.154**	.666**	.553**	.660**	1			

www.kci.go.kr

표 1. 측정변인의 상관행렬,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분석결과 (계속)

잠재변인	측정변인	1	2	3	4	5	6	7	8	9	10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8	.263**	.268**	.254**	.289**	.187**	.291**	.226**	1		
	9	.242**	.277**	.241**	.230**	.168**	.220**	.136**	.624**	1	
자활의지	10	.310**	.300**	.271**	.304**	.203**	.391**	.311**	.430**	.331**	1
평균		8.31	8.25	7.24	28.43	24.91	31.76	6.64	8.68	7.91	39.46
표준편차		6.58	6.36	5.96	6.69	6.57	6.78	2.04	3.24	3.58	9.15
왜도		-0.105	-0.183	0.059	-1.063	-0.632	-1.353	-0.638	-0.291	-0.208	-1.259
첨도		-1.432	-1.401	-1.34	4.023	2.382	6.299	0.811	0.147	-0.353	3.772

주. 1. 가족 지지, 2. 친구 지지, 3. 주요타인 지지, 4. 자신감, 5. 대인관계 효율성, 6. 낙관적 태도, 7. 분노조절, 8. 문제해결 대처방식, 9.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방식, 10. 자활의지.
주. $*p < .05$, $**p < .01$.

측정모형 검증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좋은 적합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측정모형의 타당도 검증. 모든 측정변인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0.7이상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p < .001$)으로 나타났으며, 개념신뢰도(CR)가 0.7이상, 평균분산추출지수(AVE)가 0.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측정모형 내 모든 잠재변인의 수렴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측정모형의 판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AVE와 상관계수의 제곱값(ϕ^2)을 비교한 결과, 모든 잠재변인의 AVE 값이 ϕ^2 값보다 크게 나타나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측정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및 유의성 검증결과는 표 3, 잠재변인의 수렴타

표 2.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모형	df	χ^2	χ^2/df	TLI	CFI	RMSEA	
						LO90	HI90
측정모형	30	109.533	3.651	.968	.978	.072	
						.058	.087

표 3. 측정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및 유의성 검증 결과

잠재변인	측정변인	B	β	S.E.	t
사회적 지지	가족 지지	1.000	.904	-	-
	친구 지지	1.042	.974	.026	39.526***
	주요타인 지지	.920	.919	.027	34.429***

www.kci.go.kr

표 3. 측정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및 유의성 검증 결과 (계속)

잠재변인	측정변인	B	β	S.E.	t
자아탄력성	자신감	1.174	.968	.040	29.465***
	대인관계 효율성	1.000	.839	-	-
	낙관적 태도	1.069	.871	.042	25.453***
	분노조절	.258	.697	.014	18.069***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문제 해결 대처방식	1.122	.881	.102	10.967***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방식	1.000	.709	-	-
자활의지	자활의지	.977	1.000	-	-

주. ***$p < .001$.

표 4. 잠재변인의 수렴타당도 검증 결과

잠재변인	개념신뢰도(CR)	평균분산추출지수(AVE)
사회적 지지	.953	.870
자아탄력성	.911	.721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778	.639
자활의지	1.000	.500

표 5. 측정모형의 판별타당도 검증 결과

경로	AVE		ϕ	ϕ^2	해석
사회적 지지↔자활의지	사회적 지지	.870	.313	.098	확보
	자활의지	.500			
사회적 지지↔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870	.167	.028	확보
	자아탄력성	.721			
자아탄력성↔자활의지	자아탄력성	.721	.335	.112	확보
	자활의지	.500			
사회적 지지↔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사회적 지지	.870	.335	.112	확보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639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자활의지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639	.491	.241	확보
	자활의지	.500			
자아탄력성↔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아탄력성	.721	.335	.112	확보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639			

www.kci.go.kr

당도 검증 결과는 표 4, 측정모형의 판별타당도 검증 결과는 표 5와 같다.

구조모형 검증

최대우도추정법을 통해 연구모형인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추정한 결과 양호한 모형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또한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를 추정한 결과, 구조모형의 모든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매개효과 검증

비표준화 계수를 활용하여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총 효과를 산출한 결과, 사회적 지지가

표 6. 구조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모형	df	χ^2	χ^2/df	TLI	CFI	RMSEA	
						LO90	HI90
구조모형	30	113.778	3.793	.966	.977	.074	
						.060	.089

표 7.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

변인			B	S.E.	t	β
사회적 지지	→	자활의지	.246	.067	3.668***	.156
사회적 지지	→	자아탄력성	.155	.043	3.635***	.167
자아탄력성	→	자활의지	.307	.073	4.206***	.181
사회적 지지	→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123	.022	5.610***	.287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	자활의지	1.363	.189	7.204***	.372
자아탄력성	→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134	.024	5.574***	.289

주. $^{***}p < .001$.

표 8. 구조모형의 직 · 간접효과 및 총효과 분해표

경로	총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B	β	B	β	B	β
사회적 지지 → 자활의지	.490*	.311*	.246	.156*	.244*	.155*
사회적 지지 → 자아탄력성	.155*	.167*	.155*	.167*	—	—
자아탄력성 → 자활의지	.490	.288	.307	.181	.182	.107*
사회적 지지 →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144*	.335	.123*	.287*	.021**	.048*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 자활의지	1.363	.372	1.363	.372	—	—
자아탄력성 →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134*	.289	.134*	.289	—	—

주. $^{**}p < .01$, $^{*}p < .05$.

www.kci.go.kr

자아탄력성과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매개로 자활의지에 미치는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구조모형의 직·간접효과 및 총 효과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매개변인이 두 개 또는 그 이상일 경우 Bootstrapping 검증방법은 전체 매개효과 및 유의도를 제시할 뿐 개별 간접경로 및 유의도 검증 결과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는 한계를 갖는다(서영석,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Phantom변인을 이용하여 Bootstrapping 분석을 실시하였다. Phantom변인을 이용한 매개효과 분석모형은 그림 2, 검증결과는 표 9와 같다. Phantom변인을 활용한 매개효과 검증 결과, 사회적 지지에서 자활의지에 이르는 경로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사회적 지지에서 자활의지에 이르는 경로에서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사회적 지지에서 자활의지에 이르는 경로에서 자아탄력성과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다중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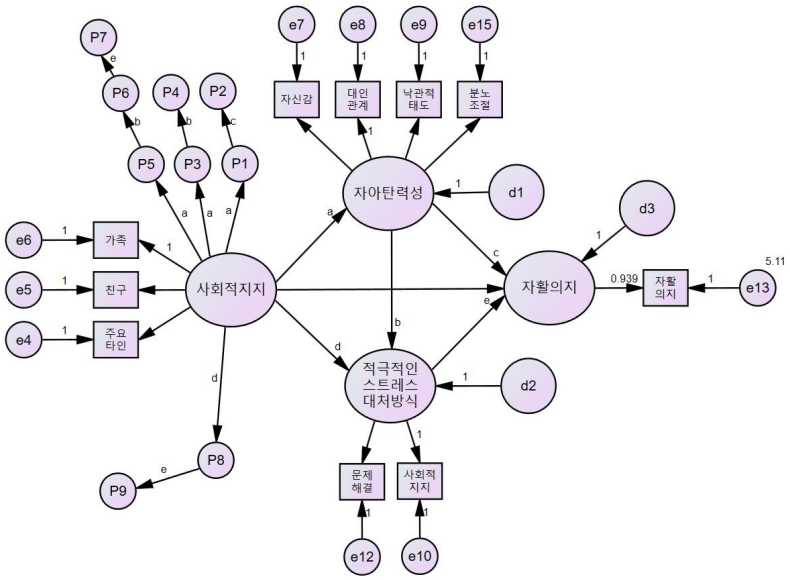

그림 2. Phantom변인을 활용한 매개효과 분석모형

표 9. Phantom변인을 활용한 매개효과 검증 결과

경로	B	S.E.	95% CI(Bias-Corrected)
사회적 지지 → 자아탄력성 → 자활의지	.037	.020	.009, .088
사회적 지지 →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 자활의지	.130	.035	.077, .215
사회적 지지 → 자아탄력성 →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 자활의지	.022	.009	.008, .046

www.kci.go.kr

다집단분석

수감횟수별・최초범죄연령별 빈도분석

수감횟수별・최초범죄연령별 연구대상자의 빈도 분석 결과는 표 10과 같다.

수감횟수별 잠재평균분석 및 집단 간 경로계수 비교

수감횟수별로 구분된 세 집단(1회, 2~4회, 5회 이상) 간의 잠재평균분석을 위해 형태동일성 검증, 측정동일성 검증, 절편동일성 검증, 요인분산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11과 같다. 형태동일성 모형 검증결과 만족할만한 적합도를 보이고, 분산이 모두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 형태동일성이 성립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측정동일성 모형 검증 결과 좋은 적합도를 보였고, 형태동일성 모형과 측정동일성 모형 간 χ^2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p = .757$)

표 10. 수감횟수별・최초범죄연령별 빈도분석

변인		빈도	비율
수감 횟수	1회(초범)	136	27.0%
	2회-4회	249	49.4%
	5회 이상	97	19.3%
	무응답	22	4.4%
최초 범죄 연령	10대	99	19.6%
	20대	157	31.2%
	30대 이상	230	45.6%
	무응답	18	3.6%

표 11. 수감횟수별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절편동일성, 요인분산동일성 검증결과

	χ^2	*df*	TLI	CFI	RMSEA	
					LO90	HI90
형태동일성 모형	196.956	90	.956	.971	.048	
					.039	.058
측정동일성 모형	205.303	102	.963	.972	.045	
					.036	.054
절편동일성 모형	242.413	122	.964	.967	.044	
					.036	.052
요인분산동일성 모형	280.300	130	.957	.959	.048	
					.040	.055

www.kci.go.kr

으로 나타나 측정동일성이 성립됨을 확인하였다. 한편 절편동일성 모형 검증 결과, 역시 좋은 적합도를 보였으며, 측정동일성 모형과 절편동일성 모형 간 χ^2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p = .006$) 나타나 절편동일성 가정이 기각되었다. 그러나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데 있어 χ^2 검증과 마찬가지로 χ^2 차이 검증 또한 표본크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Chen(2007)의 제안에 따라 CFI 차이가 .01보다 작으면 동일화 제약을 수용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절편 동일성 모형과 측정동일성 모형 간 CFI값의 차이가 -.005로 나타나 절편동일성이 성립되었다. 요인분산동일성 모형 검증 결과 역시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절편동일성 모형과 요인분산동일성 모형 간의 χ^2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p = .000$)으로 나타나 요인분산동일성 가정이 기각되었다. 그러나 Chen(2007)의 제안에 따라 CFI차이를 살펴본 결과 -.008로 나타나 요인분산동일성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감횟수별 집단 간 잠재평균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수감횟수가 1회인 집단을 참조집단으로 하여 수감횟수가 2~4회인 집단과 5회 이상인 집단과의 잠재평균을 비교하고, 수감횟수가 2~4회인 집단을 참조집단으로 하여 5회 이상인 집단과의 잠재평균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표 12와 같다. 분석 결과, 자아탄력성의 평균은 수감횟수가 1회인 집단이 2~4회인 집단, 5회 이상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중간수준의 효과크기(Cohen's d)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감횟수가 2~4회인 집단의 자아탄력성 평균은 5회 이상인 집단의 자아탄력성 평균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중간수준의 효과크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감횟수별로 구분된 세 집단에 대하여 모든 잠재변인의 요인 적재치를 동일하게 고정한 구조회귀모형의 적합도를 추정한 결과, 만족할만한 적합도를 보여 측정동일성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집단 간 회귀계수를 동일한 수준에서 해석할 수 있음을 의미

표 12. 수감횟수별 집단 간 잠재평균 차이 분석

잠재변인		사회적 지지	자아 탄력성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활의지
참조집단(1회)		0	0	0	0
측정집단(2~4회)	잠재평균	0.413	-1.452*	0.14	-0.286
	Cohen's d	0.069	0.261	0.055	0.03
측정집단(5회 이상)	잠재평균	-0.483	-3.540***	-0.133	-1.507
	Cohen's d	0.08	0.637	0.053	0.162
참조집단(2~4회)		0	0	0	0
측정집단(5회 이상)	잠재평균	-0.861	-2.146***	-0.332	-1.221
	Cohen's d	0.144	0.386	0.132	0.131

주. ***$p < .001$, *$p < .05$.

www.kci.go.kr

한다. 한편 수감횟수에 따라 세 집단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경로계수의 유의미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모형 내에 존재하는 6개의 경로계수에 각각 동일성 제약을 가한 6개의 모형을 기저모형과 비교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감횟수가 1회인 집단과 2~4회인 집단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자아탄력성이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Delta DF = 1$, $\Delta\chi^2 = 8.103$, $p = .004$, $\Delta TLI = -.002$, $\Delta CFI = -.003$). 둘째, 수감횟수가 1회인 집단과 5회 이상인 집단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가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Delta DF = 1$, $\Delta\chi^2 = 4.518$, $p = .034$, $\Delta TLI = -.002$, $\Delta CFI = -.001$). 셋째, 수감횟수가 2~4회인 집단과 5회 이상인 집단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자아탄력성이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Delta DF = 1$, $\Delta\chi^2 = 6.461$, $p = .011$, $\Delta TLI = -.002$, $\Delta CFI = -.002$). 분석 결과는 표 13과 같다.

최초범죄연령별 잠재평균분석 및 집단 간 경로계수 비교

최초범죄연령별 세 집단(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 간의 잠재평균분석을 위해 형태동일성 검증, 측정동일성 검증, 절편동일성 검증, 요인분산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14와 같다. 형태동일성 모형 검증 결과 만족할만한 적합도를 보이고, 분산이 모두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 형태동일성이 성립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측정동일성 모형 검증 결과 좋은 적합도를 보였고, 형태동일성 모형과 측정동일성 모형 간 χ^2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p = .268$)으로 나타나 측정동일성이 성립됨을 확인하였

표 13. 수감횟수별 집단 간 경로계수 비교(요인적재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경로	1회			2~4회			5회 이상		
	B	β	p	B	β	p	B	β	p
사회적 지지 → 자활의지	.292	.163	.024*	.287	.212	.001**	.112	.064	.513
사회적 지지 → 자아탄력성	.300	.155	.068	.135	.081	.195	.589	.394	***
자아탄력성 → 자활의지	1.965	.456	***	1.237	.357	***	1.133	.316	.003**
사회적 지지 →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068	.074	.368	.129	.158	.016*	.374	.317	.002**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 자활의지	.093	.226	.005**	.127	.329	***	.136	.277	.010*
자아탄력성 →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209	.465	***	.067	.140	.044*	.108	.259	.015*

주. ***$p < .001$, **$p < .01$, *$p < .05$.

www.kci.go.kr

표 14. 최초범죄연령별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절편동일성, 요인분산동일성 검증

	χ^2	df	TLI	CFI	RMSEA	
					LO90	HI90
형태동일성 모형	176.623	90	.959	.973	.045	
					.035	.054
측정동일성 모형	191.151	102	.963	.972	.043	
					.033	.052
절편동일성 모형	250.778	122	.955	.967	.047	
					.038	.055
요인분산동일성 모형	256.887	130	.958	.960	.045	
					.037	.053

다. 한편 절편동일성 모형 검증 결과, 좋은 적합도를 보였으며, 측정동일성 모형과 절편동일성 모형 간 χ^2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p = .000$) 나타나 두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절편동일성 가정이 기각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절편동일성 모형과 측정동일성 모형 간 CFI값의 차이가 -.005로, Chen(2007)의 제안에 따라 절편동일성이 성립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요인분산동일성 모형 검증 결과 역시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절편동일성 모형과 요인분산동일성 모형 간의 χ^2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p = .635$) 요인분산동일성이 성립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초범죄연령별 집단 간 잠재평균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최초범죄연령이 청소년기인 집단을 참조집단으로 하여 청년기 집단과 성인기 집단과의 잠재평균을 비교하고, 최초범죄연령이 청년기인 집단을 참조집단으로 하여 성인기 집단과의 잠재평균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표 15와 같다. 분석 결과, 최초범죄연령이 청년기인 집단은 청소년기 집단에 비해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자활의지 평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활의지는 중간 수준의 효과크기,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은 작은 값의 효과크기를 보였다. 또한 최초범죄연령이 성인기인 집단은 청소년기 집단에 비해 자아탄력성,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활의지의 평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탄력성,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활의지는 중간 수준의 효과크기, 사회적 지지는 작은 값의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한편 최초범죄연령이 성인기인 집단은 청년기 집단에 비해 자아탄력성 평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탄력성은 중간 수준의 효과크기, 사회적 지지,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활의지는 작은 값의 효과크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범죄연령별로 구분된 세 집단에 대하여 모든 잠재변인의 요인 적재치를 동일하게 고정한 구조회귀모형의 적합도를 추정한 결과, 만족할만한 적합도를 보여 측정동일성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최초범죄

www.kci.go.kr

표 15. 최초범죄연령별 집단 간 잠재평균 차이 분석

잠재변인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활의지
참조집단(청소년기 집단)		0	0	0	0
측정집단 (청년기 집단)	잠재평균	1.01	-0.005	1.302***	1.194*
	Cohen's d	0.173	-0.001	0.499	0.311
측정집단 (성인기 집단)	잠재평균	0.844	1.369*	1.692***	2.482*
	Cohen's d	0.144	0.292	0.648	0.281
참조집단(청년기 집단)		0	0	0	0
측정집단 (성인기 집단)	잠재평균	-0.152	1.352**	0.395	-0.268
	Cohen's d	-0.026	0.289	0.151	-0.03

주. ***$p<.001$, *$p<.05$.

연령에 따라 세 집단 간 존재할 수 있는 경로계수의 유의미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모형 내에 존재하는 6개의 경로계수에 각각 동일성 제약을 가한 6개의 모형을 기저모형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초범죄연령이 청소년기인 집단과 청년기인 집단의 차이를 살펴보면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Delta DF=1$, $\Delta\chi^2=4.237$, $p=.040$, $\Delta TLI=-.002$, $\Delta CFI=-.002$). 둘째, 최초범죄연령이 청소년기인 집단과 성인기인 집단의 차이를 살펴보면 자아탄력성이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사회적 지지가 적극적인 스트레

표 16. 최초범죄연령별 집단 간 경로계수 비교(요인적재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경로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		
	B	β	p	B	β	p	B	β	p
사회적 지지 → 자활의지	.566	.356	.004**	.138	.089	.293	.126	.089	.124
사회적 지지 → 자아탄력성	.163	.193	.060	.136	.175	.037*	.040	.051	.461
자아탄력성 → 자활의지	-.029	-.015	.872	-.078	-.039	.628	.559	.309	***
사회적 지지 →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250	.552	***	.164	.379	***	.064	.149	.038*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 자활의지	.652	.186	.180	1.899	.532	***	1.176	.355	***
자아탄력성 →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086	.161	.113	.143	.258	.005**	.196	.359	***

주. ***$p<.001$, **$p<.01$, *$p<.05$.

www.kci.go.kr

스 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Delta DF = 1$, $\Delta\chi^2 = 7.512$, $p = .006$, $\Delta TLI = -.005$, $\Delta CFI = -.005$). 셋째, 최초범죄연령이 청년기인 집단과 성인기인 집단의 차이를 살펴보면 자아탄력성이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Delta DF = 1$, $\Delta\chi^2 = 5.895$, $p = .015$, $\Delta TLI = -.003$, $\Delta CFI = -.003$). 분석 결과는 표 16과 같다.

논 의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그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소자가 인식한 사회적 지지는 자활의지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족 구성원들과의 접촉과 지지 제공이 출소자의 출소 후 사회 재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Visher & Travis, 2003), 지지적인 가족의 존재가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 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Nelson, Deess & Allen, 2011), 대부분의 출소자들이 가족, 친구를 통해 직업기회를 갖게 된다는 연구결과(Solomon, Roman, & Waul, 2001), 홍콩의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가족 및 동료구성원들과 긍정적인 사회적 연대를 형성한 출소자의 재범률이 낮다는 결과(Adorjan & Chui, 2014)는 사회적 지지가 자활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임을 밝힌 본 연구의 결과와 상통한다. 예컨대 Restorative Opportunities 프로그램이나 COSA(Circles of Support and Accountability)와 같이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세계 각국의 정부 및 민간 기관의 교정 사업과 프로그램은 출소자로 하여금 가해자로서의 죄책감과 수치심을 다루도록 해 주고, 가족의 일원이자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는 출소자에 대한 소극적인 관리·감독에 치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교정 정책 체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향후 출소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해서는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출소자의 가족 복귀 및 지역사회 적응을 돕는 방안을 마련하되, 출소자 본인에 대한 지원은 물론 출소자 가족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역할과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출소자가 인식한 사회적 지지는 자아탄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아탄력성은 자활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소자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를 사회자본의 개념으로 설명한 신연희(2008)의 연구에서는 출소자에게 있어 사회자본이 갖는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사회자본이란 사람들이 사회생활 속에서 형성하는 대인관계를 통해 얻는 자본으로(Coleman, 1988), 사회자본은 출소 후 출소자의 사회적응력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연희, 2008). 또한 Wolff와 Drain(2004)은 수감 기간 중 외부, 특히 가족과의 관계 유지가 수용자의 정서적 충격 완화에 도움을 주고, 출소 후의 현실 적응, 출소자의 자아정체성 및 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출소자의 자아탄력성은 자활의지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아탄력성이 맡은 직무에 대한 효과적 수행 및 심리적 안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

www.kci.go.kr

과(김현주, 김광웅, 2007)와 맥을 같이 한다.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자신감과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며(황순택, 구형모, 김지혜, 2001),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및 자아존중감은 자활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이라는 연구결과(김승의, 2006)를 종합하여 볼 때,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자활의지가 향상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이는 출소자의 자아탄력성과 자활의지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검증하여 밝힌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출소자의 자아존중감 증진 및 자신감 배양을 통해 심리적 안녕과 효과적인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 궁극적으로 자활의지 향상을 위한 자원으로서의 자아탄력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셋째, 출소자가 인식한 사회적 지지는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자활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가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스트레스 상황에 처한 개인이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적절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을 때 대처능력이 향상되어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연구결과(Cohen & Wills, 1985)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Calhoun과 Tedeschi(2014)는 스트레스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적 지원과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을 '대화를 통한 자기노출'로 표현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감정을 외부로 표출하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지지가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가족의 지지는 수형자 및 출소자에게 불안, 재범과 같은 내・외적 문제들을 극복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가족과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은 수형자들로 하여금 수형 생활 중 경험하는 불안을 감소시키는 한편 출소 후 재사회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olt & Miller, 1972; Howser & McDonald, 1982). 이 외에도 다수의 선행연구(Bales & Mears, 2008; Horney, Osgood, & Marshall, 1995; Sampson & Laub, 1990)에서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를 통한 출소자의 문제행동 감소 및 재범예방에 사회적 지지, 특히 가족의 지지가 갖는 영향력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는바 출소자 가정의 가족기능 회복과 가족 내 응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출소자 가족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출소자의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자활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이는 다양한 유형의 대처행동들이 개인의 적응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김윤경, 정문자, 2009)와 맥을 같이한다. 구체적으로 Compas, Malcarne, Fondacaro (1988)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따라 적응 수준이 달라진다고 주장하였고, 국내 연구들(박경순, 1999; 박진아, 정문자, 2001)에서는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을 직접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해결 대처행동과 다른 사람의 도움을 활용하려는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행동을 많이 할수록 스트레스 후에 우울, 불안, 위축 등의 내면화 행동문제와 비행, 반사회적 공격행동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덜 보인 반면 소극적 대처행동을 많이 할수록 스트레스 후 내면화・외현화 행동을

www.kci.go.kr

더 많이 보인다고 보고한바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은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상황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출소자의 심리적 안정, 자립·자활 및 재범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출소자의 자활의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습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실효성 있는 운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출소자가 인식한 사회적 지지와 자활의지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가 각각 유의하였다. 먼저 출소자가 인식한 사회적 지지는 자아탄력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출소자가 인식한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아지고, 높은 수준의 자아탄력성은 자활의지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영애(2010)는 사회적 지지 자원의 제공도 중요하지만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고 받아들이는 심리적 특성으로서의 자아탄력성이 자활의지에 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들어 자아탄력성의 향상을 강조하였다. 이는 출소자에게 적응력과 의지의 기반이 되는 자아탄력성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지지가 자활의지를 함양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출소자가 인식한 사회적 지지가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통해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적 지지를 통해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수준이 높아진 출소자들의 자활의지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입협과 오세란(1996)은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에 대한 보호의 역할, 문제해결 능력 증진뿐 아니라 적응행동 증진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 문제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지지 수준이 스트레스 대처 및 문제해결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환경에 대한 개인의 적응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출소자가 인식한 사회적 지지와 자활의지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다중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사회적 지지는 자활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아탄력성 및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출소자가 인식한 사회적 지지가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탄력성과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갖는 순차적 매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출소자가 인식한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향상되고, 높은 수준의 자아탄력성은 출소자로 하여금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함으로써 자신이 처한 환경과 현실에 잘 적응하고, 궁극적으로 자활의지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사회적 지지를 통한 개인의 건강한 적응은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쳐 부적응을 방지하고, 스트레스 대처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며, 불안에 대한 민감성을 낮추고 삶에 긍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연구결과(Block & Kremen, 1996),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하고, 환경에 잘 적응함으로써 사회적·직업적·심리적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박연성, 현은미, 2009)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이는 출소자의 자활의지 향상에 있어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의 향상,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

www.kci.go.kr

처방식의 습득 등 사회적·심리적 요인을 고려한 다각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여섯째, 수감횟수에 따른 잠재평균 및 집단 간 경로계수 차이 검증 결과, 수감 횟수가 증가할수록 자아탄력성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감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자아탄력성이 낮아지고, 자아탄력성이 낮아질수록 재범확률은 98% 높아진다고 밝힌 연구(이동훈 외, 2014)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수감횟수의 증가로 인한 자아탄력성의 감소 자체가 아니라 자아탄력성의 감소로 인한 재범률 상승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반복적인 수감으로 인해 사회로부터 격리된 기간이 길수록 사회 적응 능력이 저하됨으로써 자아탄력성이 낮아지고, 이와 같은 사회 적응의 어려움은 결국 재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전 수감횟수가 많은 출소자일수록 본인이 출소 후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을 높게 예측한다는 연구 결과(연성진, 최진규, 유영재, 장홍근, 2012)는 출소 후 현실 적응의 한계와 재범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출소자들의 현주소를 반영하고 있는 대목이다. 이는 반복되는 재범이나 장기간의 복역생활로 인해 출소 후 사회 적응이 어려운 취약 집단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수감횟수에 따라 자활의지 관련 변인들 간의 영향력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즉 사회적 지지를 강화시키고, 자아탄력성 및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향상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수감횟수에 따른 집단별 특성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일곱째, 최초범죄연령에 따른 잠재평균 및 집단 간 경로계수 차이 검증 결과, 최초범죄연령이 청년기인 집단은 청소년기 집단에 비해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자활의지 평균이, 성인기인 집단은 청소년기 집단에 비해 자아탄력성,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활의지의 평균이, 성인기인 집단은 청년기 집단에 비해 자아탄력성 평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서 특이할만한 점은 최초범죄연령이 청소년기인 집단의 경우, 청년기와 성인기 집단에 비해 재범의 보호요인이라 할 수 있는 자활의지 및 관련변인들의 잠재평균값이 대체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최초범죄연령이 빠를수록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Wierson & Forehand, 1995), 최초범죄연령이 재범의 주요 예측요인이 된다는 주장(Mitchell, Parent, & Barnett, 2002)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 및 청소년의 문제행동 및 범죄가능성이 관측되는 경우, 해당 문제행동이 심각한 범죄행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 개입이 필수적이며, 이들의 범죄위험요인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처우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집단 간 경로계수 차이 검증 결과에 따르면, 최초범죄연령이 청년기인 집단은 청소년기 집단 및 성인기 집단에 비해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자활의지에 보다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성인기는 청소년기 집단과 청년기 집단에 비해 자아탄력성이 자활의지에 보다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활의지 향상을 통한 재범예방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최초범죄연령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특히 경력범죄자들의 범죄시작 연령을 고려한 차별적인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www.kci.go.kr

우리나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는 출소자들의 자활의지 향상을 위하여 사회성 향상, 대인관계 능력증진, 사회적응력 배양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서비스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담심리적 개입 프로그램들은 구체화된 매뉴얼이 없고 효과성 검증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추후에는 선진 각국의 출소자 지원 정책 가운데 출소자의 내적 역량을 강화시키고 정신건강의 향상을 통해 출소자의 자활의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도입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자체적인 프로그램 개발, 이에 필요한 상담 전문인력 확충 및 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지금까지 감시와 배제, 경계의 대상으로만 보아 왔던 출소자를 체계적인 연구의 대상으로 인식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출소자의 자활의지를 주제로 수행된 연구가 제한적인 가운데 출소자의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도출하여 그 인과관계 및 수감횟수와 최초범죄연령에 따른 차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셋째, 지금까지 출소자의 재범 방지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법적・정책적・제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 이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출소자 개인의 인식, 자아탄력성,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활의지와 같은 요인들을 탐색함으로써 출소자 개인의 내적 자원과 가능성 안에서 재범예방의 해법을 찾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가 지닌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출소자의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출소자가 인식한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세 가지로 제한하였다. 이 세 가지 변인은 선행연구를 통해 출소자의 자활의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선정되었으나 출소자의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의 관계를 모두 살펴볼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최근에는 기존의 자활의지에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기대까지 포함한 희망(Hope)을 심리적 자활로 보고, 이를 경제적 자활의 중요한 선행요건으로 논의한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Hong, Polanin, & Pigott, 2012). 이와 더불어 출소자의 긍정적 변화와 목표 성취를 위한 동기화의 핵심개념으로 Snyder(2002)의 희망이론이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으므로(이동훈 외, 2014) 추후 연구에서는 출소자의 자활의지와 관련하여 희망 등 다양한 변인을 고려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출소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로서, 형기 종료・가석방・사면 등의 사유로 출소한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개념이다(법무연감, 2015).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부터 숙식지원을 받고 있는 출소자에 한정하여 연구참여자 선정이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한계점을 보완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출소자의 자활의지 측정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연구대상 표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www.kci.go.kr

참고문헌

김광웅 (2007). 자아존중감 및 자기수용과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983-999.

김대권, 정우일 (2010). 사회 내 차별경험에 관한 수형자의 인식. 경찰학논총, 5(1), 351-374.

김선희, 최병욱 (2012). 출소자를 위한 상호통섭적 인문치료의 이론적 접근. 인문과학연구, 32, 403-430.

김세원 (2005). 자활사업 대상자의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대전광역시 자활후견기관을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승의 (2006).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욕 및 취업창업관련 활동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영미 (2002). 자활지원사업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여성참여자를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윤경, 정문자 (2009). 학교폭력 피해아동의 내외통제성과 사회적 지지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행동.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7(8), 1-11.

김인경 (2012). 음악치료사의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4(1), 41-61.

김현정, 함경애, 이동훈 (2014). 실직자의 가족탄력성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적극적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3), 787-806.

김현주, 김광웅 (2007). 아동상담자의 자아탄력성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역전이 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놀이치료연구), 10(1), 35-46.

김현중 (2012). 사회적 지지가 가출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사회적 탄력성의 조절효과. 침례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노일석 (2010). 남자 청소년 폭력사범 재범 예측 요인. 형사정책연구, 349-379.

민그래, 이희선 (2013).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간의 관계-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1(4), 7-16.

박경숙, 박능후 (2001). 저소득층 여성가장 생활실태조사 및 자활프로그램 개발. 경기도 : 여성정책과.

박경순 (1999). 아동의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양식 및 우울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선정, 정규석 (2016). 부모상실경험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가족탄력성, 의도적 반추, 적극적 대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8(2), 115-140.

박연성, 현은미 (2009). 남녀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1), 221-234.

박영란, 강철희 (1999) 저소득 모자가정 가구주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 91-116.

박영애 (2010). 스트레스와 학교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보호시설 청소년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지선 (2015). 비행청소년의 전과 유무에 따른 제반 특성 및 위험 요인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법정, 6(2), 71-84.

박진아, 정문자 (2001).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

www.kci.go.kr

스 대처행동과 행동문제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2(3), 107-122.

박현진 (1996). 자아탄력성에 따른 지각된 스트레스, 대처 및 우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법무부 (2015). 범죄백서. 서울: 법무부.

서영석 (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47-1168.

송순동 (2008). 출소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사회기술 프로그램 도입방안.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연희 (2007). 청소년기 시설입소의 장기적 효과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34, 131-157.

신연희 (2008). 여자비행청소년의 성적학대 치유프로그램의 방향. 교정담론, 2(2), 107-133.

양난미, 이건화, 송미경, 이은경 (2016). 출소자 취업지원관의 경험에 대한 연구: 취업지원 업무, 출소자의 취업과 취업유지. 상담학연구, 17(3), 477-502.

양혜경, 서보람 (2014). 수형자의 출소 후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63, 115-144.

연성진, 최진규, 유영재, 장홍근 (2012).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 연구(1)-출소자 주거 및 취업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업설립, 육성방안.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염정선 (2014). 출소자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재범의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수성, 신현균(2008). 5·18 피해자들의 생활스트레스, 대처방식,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외상 후 스트레스, 심리건강 간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3), 595-611.

위종희, 조규판 (2014). 아동이 지각한 가족건강성,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심리적 안녕감 간의 구조관계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8), 237-264.

이동훈, 박성현, 조현주, 박선영, 신지영, 오대연, 조진옥, 오세준, 임인구, 류석진, 노지애 (2014). 출소자 가정 복원을 위한 모델 정립과 모델 유형에 따른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한구법무보호복지공단 연구용역과제.

이동훈, 신지영, 오혜영, 박성현 (2015). 출소자의 가정복원 과정에 관한 교정전문가의 인식. 한국가족복지학, 20(3), 499-530.

이래혁, 김승아, 노혜진 (2007). 자활사업 참여자의 심리 사회 특성이 정서적 자활에 미치는 영향. (사)한국자활후원기관협회 자활사업논문공모전 자료집, 6-39.

이병하 (2003). 자활후견 프로그램 참여자의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봉기 (2010). 수용자의 출소 후 사회복귀경험에 관한 연구 : Giorgi의 현상학적 방법론을 통해.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선숙 (2010). 수형자의 지각된 취업제한 장벽이 진로포부형태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완영 (2009). 출소자의 지역사회적응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용언, 임중철 (2015). 준고령층 자활사업 참여자의 직무만족이 자활의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35, 1003-1017.

장입협, 오세란 (1996). 사회지지체계론, 사회복지실천연구소.

정지영, 임정하 (2011). 청소년의 기질, 가족건

www.kci.go.kr

강성, 사회적 지지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3(1), 37-51.

조희원, 도광조 (2014). 출소자의 취업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교정복지연구, 51-81.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17). www.koreha.or.kr 에서 자료 얻음.

한순옥 (2014). 갱생보호대상자의 사회적 지지와 자립의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교정복지연구, 55-88.

홍봉선 (2002). 출소자 복지증진과 갱생보호사업의 활성화 방안. 교정연구, 14, 143-175.

황순택, 구형모, 김지혜 (2001). 자아탄력집단의 성격특질.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3), 569-581.

황진규 (2011).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Adorjan, M., & Chui, W. H. (2014). Aging out of crime resettlement challenges facing male ex-prisoners in hong kong. *The Prison Journal*, *94*(1), 97-117.

Amy, L. E. S. (2000). *Situational and Psychological Predictors of Successful Transitions from Welfare to Work*.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Bales, W. D., & Mears, D. P. (2008). Inmate social ties and the transition to society: Does visitation reduce recidivism?.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45,* 287-321.

Baumer, E. (1997). Levels and predictors of recidivism: The Malta Experience. *Criminology, 35*(4), 601-628.

Blaginin, A. A. (2008). The trends of psychophysiological support's optimization during professional work of experts of management of space device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physiology, 69*(3), 144.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

Calhoun, L. G., & Tedeschi, R. G. (2014). *Handbook of posttraumatic growth: Research and practice*. Routledge.

Chen, F. F. (2007). Sensitivity of goodness of fit indexes to lack of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4*(3), 464-504.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Cohen, S., & Hoberman, H. M.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1.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2), 99-125.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5-120.

Compas, B. E., Malcarne, V. L., & Fondacaro, K. M. (1988). Coping with stressful events in older children and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3), 405.

Cook, J. D., & Bickman, L. (1990).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symptomatology following a natural disaster. *Journal of Traumatic Stress, 3*(4), 541-556.

Cosgrove, F., & O'Neill, M. (2011). *The Impact of*

www.kci.go.kr

Social Enterprise on Reducing Re-offending. Durham University, School of Applied Sciences.

DeJong, C. (1997). Survival analysis and specific deterrence: Integrating theoretical and empirical models of recidivism. *Criminology, 35*(4), 561-576.

e-나라지표. (2016). www.index.go.kr

Fine, A., Cavanagh, C., Donley, S., Frick, P. J., Steinberg, L., & Cauffman, E. (2017). Is the effect of justice system attitudes on recidivism stable after youths' first arrest? Race and legal socialization among first-time youth offenders. *Law and Human Behavior, 41*(2), 146.

Gottlieb, B. H. (1983). *Social support strategies: Guidelines for mental health practice* (Vol. 7). Sage Publications, Inc.

Hawkins, R. L. (2002). *How low-income single mothers leave welfare for economic self-sufficiency: The role of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human capital, and social capital.* Dissertation, Brandeis University.

Hirschel, J. D., Hutchison, I. W., & Dean, C. W. (1992). The failure of arrest to deter spouse abus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9*(1), 7-33.

Holt, N., & Miller, D. (1972). *Explorations in inmate-family relationships.* Sacramento, CA: Research Division, California Department of Corrections.

Hong, P. Y. P., Polanin, J. R., & Pigott, T. D. (2012). Validation of the employment hope scale: Measuring psychological self-sufficiency among low-income jobseekers.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Horney, J., Osgood, D. W., & Marshall, I. H. (1995). Criminal careers in the short-term: Intra-individual variability in crime and its relation to local life circumstanc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55-673.

Howser, J. F., & MacDonald, D. (1982). Maintaining family ties. *Corrections Today, 44*(4), 96-98.

Khan, M. R., Doherty, I. A., Schoenbach, V. J., Taylor, E. M., Epperson, M. W., & Adimora, A. A. (2009). Incarceration and high-risk sex partnerships among men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Urban Health, 86*(4), 584-601.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Guilford publications.

Klohnen, E. C. (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5), 1067.

Lazarus, R. S. (1998). *Fifty years of the research and theory of RS Lazarus: An Analysis of Historical and Perennial Issue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Springer Publishing Company.

Liu, J. (1999). Social capital and covariates of reoffending risk in the Chinese context.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Review, 9*(1), 39-55.

Loeber, M., & Loeber, R. (2002). Lost opportunities for intervention: Undetected markers for the development of serious juvenile delinquency. *Criminal behaviour and mental health, 12*(1), 69.

www.kci.go.kr

Martins, S. S., Lee, G. P., Santaella, J., Liu, W., Ialongo, N. S., & Storr, C. L. (2014). Age of first arrest varies by gambling status in a cohort of young adults. *The American Journal On Addictions, 23*(4), 386-392.

McAuley, E., Bane, S. M., & Mihalko, S. L. (1995). Exercise in middle-aged adults: Self-efficacy and self-presentational outcomes. *Preventive Medicine*, *24*(4), 319-328.

Mitchell, C., Parent, D. G., & Barnett, B. (2002). *Transition from prison to community initiative.* Retrieved April, 3, 2004.

Mossholder, K. W. (1980). Effects of externally mediated goal setting on intrinsic motivation: A laboratory experimen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5*(2), 202.

Nelson, M., Deess, P., & Allen, C. (2011). The first month out: Post-incarceration experiences in New York City. *Federal Sentencing Reporter*, *24*(1), 72-75.

Patterson, G. R., & Yoerger, K. (2002). *A developmental model for early-and late-onset delinquency.*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earlin, L. I., & Schooler, C. (1978).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1.

Pechorro, P., Nunes, C., Jiménez, L., & Hidalgo, V. (2015). Incarcerated youths with high or low callous – unemotional traits: A comparison controlling for age of crime onset. *Journal Of Forensic Psychiatry & Psychology, 26*(1), 78-93.

Phillips, M. D. (2017). A factor analytic model of drug-related behavior in adolescence and its impact on arrests at multiple stages of the life course.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33*(1), 131-155.

Sampson, R. J., & Laub, J. H. (1990). Crime and deviance over the life course: The salience of adult social bond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09-627.

Smith, D. A., & Gartin, P. R. (1989). Specifying specific deterrence: The influence of arrest on future criminal activ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94-106.

Snyder, C. R. (2002). Hope theory: Rainbows in the mind. *Psychological Inquiry, 13(*4), 249-275.

Solomon, A., Roman, C. G., & Waul, M. (2001). *Summary of focusing group with ex-prisoners in the District: Ingredients for successful reintegration.* Washington, DC: Urban Institute.

Visher, C. A., & Travis, J. (2003). Transitions from prison to community: Understanding individual pathways. *Annual Review of Sociology*, 89-113.

West, H. C., Sabol, W. J., & Greenman, S. J. (2010). Prisoners in 2009.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Bulletin*, 1-38.

White, M. C., Chafetz, L., Collins-Bride, G., & Nickens, J. (2006). History of arrest, incarceration and victimization in community-based severely mentally ill. *Journal of Community Health, 31*(2), 123-135.

Wierson, M., & Forehand, R. (1995). Predicting recidivism in juvenile delinquents: The role of mental health diagnoses and the qualification of conclusions by race.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3*(1), 63-67

Wolff, N., & Draine, J. (2004). Dynamics of social capital of prisoners and community reentry:

www.kci.go.kr

Ties that bind?. *Journal of Correctional Health Care, 10*(3), 457-490.

Zimet, G. D., Dahlem, N. W., Zimet, S. G., & Farley, G. K. (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1), 30-41.

원 고 접 수 일 : 2019. 01. 17
수정원고접수일 : 2019. 03. 15
게 재 결 정 일 : 2019. 04. 10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19, Vol. 31, No. 3, 749-777

Mediation Effects of Self-resilience and Active Stress-coping Method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Willingness for the Self-sufficiency among Ex-offenders : Multi-group Analysis According to the Number of Imprisonment and the Age of Initial Crime

Su Eun Kang **Dong Hun Lee**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rify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self-resilience, active stress-coping methods and the willingness for self-sufficiency. Data was collected from 504 ex-offenders and analyzed using SPSS 23.0 and AMOS 23.0. The results indicated that all path coefficients in the structural model were meaningful on the structural model. Additionally, the mediation effects of self-resilience and active stress-coping methods were respectively meaningful between social support and the willingness for self-sufficiency. Multiple-group analysis based on ex-offenders' number of incarcerations and age at initial crime indicated that the proposed model had good corresponding level to all the groups distinguished, and that the structural model properly explained all of the groups.

Key words : ex-offenders, social support, self-resilience, active stress-coping methods, the willingness for self-sufficiency

www.kci.go.kr